

'처녀성' 처럼 지켜온 연극 한길

연극인 손진책 · 김성녀씨 부부의 서가



“우리는 마당을 추구한다. 마당이란 오늘이다. 마당이란 여기다. 그것은 주객이 일체가 되는 영원한 역동성이다. 마당이란 아름다움과 추함을 동시에 표출하는 우리 몸의 느낌이다. 미추는 영원한 우리의 마당이다.”

86년 창단한 극단 미추의 정신은 10년을 훌쩍 넘긴 지금도 '처녀성' 처럼 지켜진다. 연출가와 배우로 서로를 부추기고 매질하며 연극 한길을 걸어온 부부 연극인 손진책씨와 김성녀씨는 미추의 '정신'을 버티는 중요한 힘이다. <지킴이> <오장군의 발톱> <신이국기>처럼 첨예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 <소태산> <천명> 등 판소리의 연극적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창극과, 전통의 현대화·대중화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마당놀이 등 미추가 그동안 공연했던 작품들은 이들이 추구하는 연극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들 부부는 창단 10주년이던 지난해 오랜 숙원을 풀었다. 서울을 벗어나 편하고 넓은 연습실과 자그마한 공연장을 하나 갖고 싶었던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5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게 된 곳은 경기도 고양의 백석마을. '미추산방'이라 이름붙인 3층짜리 건물에 살림집과 극단 사무실, 연습실과 소품실, 마을 이름을 딴 200석 규모의 공연장 '흰돌극장'도 마련했다. 단원들의 숙식 시설도 완벽에 가깝다.

사무실 한 자리를 차지하는 손진책씨의 서가는 연극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훑어봐야 할 책과 자료들로 가득하다.

수백편에 달하는 연극대본들은 가장 눈길을 끄는 자료. 다른 데서는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옛 연극의 대본들도 이곳에는 있다. 판소리·민요·무가 등 구비문학 연구서와 사설집은 물론이고 탈춤, 오광대 등 전통연희에 관한 책들은 우리식 연극을 모색하는 손진책씨의 손길을 많이 탄 책들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사상이나 미학, 신화 등에 관한 책들이며 한국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사회과학서들이 뽐뽐하다.

'미추산방'으로 이사한 후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다는 이들 부부는 미추산방이 연극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며 공부하고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 올려보기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극 자료실'과 '연극학교'를 개설, 미추산방이 연극인들이 내뿜는 활기로 가득차는 상상은 그들을 기분 좋게 한다.

— 박남정 기자



① 연극대본은 우리나라 연극사의 중요한 사료다. 다른 데서는 찾을 길 없는 귀한 대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손진책씨는 우리나라에서 연극대본을 가장 많이 소장한 사람으로 꼽힌다.

② 박완서의 《모독》, 이상문학상 소설선집 등 손진책씨의 책상에는 최근 출간된 책들이 여러 권 있다. 책 읽기는 세상을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③ 희곡작가 오영진 선생의 육필 일기와 원고들. 후손이 없는 선생이 손진책씨에게 남긴 유품이다. 이 원고들을 책으로 출간해야 한다는 마음의 짐이 있다.

④ '미추산방'은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나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이다. 이곳을 연극학교, 자료실, 박물관 등이 갖춰진 한국 연극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것이 손진책씨와 김성녀씨가 함께 꾸는 꿈이다.

⑤ "이제는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내로서의 의무를 강요하기보다는 한 길을 가는 동지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손진책씨가 고마워 김성녀씨는 좋은 책과 자료가 있으면 알뜰하게 챙겨와 남편의 서가를 채워주기도 한다.

